도립국악원 증개축, 37년 역사 전환점

전북도립국악원(원장 박현규)이 2022년 주요업무계획으로 ▲국악원 증개축으로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판소리 다섯바탕과 지역적 소재를 활용 공연 제작 및 상설공연 강화, ▲비대면 시대 도민 맞춤형 국악연수 추진, ▲국악자료 발굴·보존으로 도민의 문화적 자긍심 고취를 발표했다.

박현규 원장은 주요업무계획 발표에 앞서 "올 한해는 국악원 증개축 공사를 본격 추진하는 국악원 37년 역사의 전환점"이라고 강조하며 "그간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새로운 시작을 위해 단원들과 함께, 힘찬 발걸음을 내딛겠다"고 다짐했다.

전북도립국악원 새해 주요업무계획 발표

6월 증개축 내년 완공, 기후변화 대응 신재생에너지 설비 도입

국악 공연 등 통한 도민 문화향유 확대·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

전북도립국악원이 개최한 공연 현장. 〈사진=전북도립국악원 제공〉

▲노후화된 국악원 증개축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개선

노후화된 청사 증개축 공사는 202억 원을 투입해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로, 올해 4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오는 6월에 착공, 2023년까지 신축 건물을 완공할 계획이다.

기후변화 대응과 생태문명 시대에 필요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도입하고, 향후 국악원의 확장성을 고려, 주변부지와 연계가 가능하도록 설계에 반영한다.

▲판소리 다섯 바탕과 지역 소재 활용 공연 제작 및 상설공연 강화

창극단(단장 조영자)은 판소리 심청가에 새롭고 다양한 변화를 시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대중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창극 '심청전'을 제작해 7월에 선보일 예정이다.

무용단(단장 이혜경)은 '전북농악'을 원초적 몸짓과 장단의 조화로움을 극대화한 창작무용 '진경(進慶)'을 준비중으로, 오는 10월에 관객과의 만남을 기다리고 있다.

관현악단(단장 권성택)은 국악의 본향 전북도의 정체성을 담아내어 국악의 원형을 찾는 연작 시리즈 本 Ⅳ '거장(virtuoso)'를 10월 공연에 맞춰 기획하고 있다.

목요국악예술무대 '토닥토닥'은 예술 3단의 예술적 기량을 바탕으로 국악을 쉽게 접하고 즐길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시·군 순회공연과 찾아가는 국악공연을 통해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국내외 교류공연으로 국악원의 위상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대면 공연과 함께 온라인 유튜브 공연 생중계 및 홈페이지, 국악방송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비대면 방식으로도 지속적으로 공연을 제공할 계획이다.

▲비대면 시대에 걸맞은 도민 맞춤형 국악연수 추진

대면 국악연수를 대신해 올해도 고급반동영상 강좌를 제작, 초·중·고급반 동영상 600강좌를 비대면 온라인으로 운영한다.

아울러, 도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기존 6개 시·군에서 14개 시·군으로 찾아가는 국악 교육을 확대 시행한다.

또, 도내 청소년들이 쉽고 친근하게 국악을 접할 수 있도록 주말 강좌를 개설, 청소년 국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국악자료 발굴·보존, 문화적 자긍심 고취

도내에 산재한 역사문화 자원을 조사해 중장기 5개년 공연계획을 수립, 먼저, 1차년인 올해는 공연 제작 소재로 활용할 수 있는 역사문화 자원을 조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다.

또한, 37년 만에 철거되는 현 국악원의 역사적 발자취를 기록하고, 국악 관련 학술자료 정리와 소식지 발간 등 국악 저변확대를 위한 소통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상임단원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운동처방 프로그램 운영

예술단원들의 부상 및 질병을 사전에 예방해 시간적 기회비용 절감과 근무능률 향상으로 도민에게 양질의 국악교육과 완성도 있는 공연을 제공하고자 한다.

오는 2월부터 주 1회 상임단원에 대한 운동처방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자세교정 및 운동처방 등을 통해 상임단원 사기진작 및 업무능률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박현규 원장은 "오미크론 확산 등으로 코로나19 종식이 불확실한 상황이지만, 도립국악원 전 단원이 합심해 양질의 국악공연과 수준높은 국악교육으로 도민과 함께하는 국악원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JEONJU WANTS YOU!

전주국제영화제 '지프지기' 모집

내달 23일까지 한달간 시니어 자원활동가도

제23회 전주국제영화제(집행위원장 이준동)가 26일부터 오는 2월 23일까지 한달간 전주국제영화제 공식 자원활동가 '지프지기'를 모집한다.

지프지기는 오는 4월 28일부터 5월 7일까지 열리는 제23회 전주국제영화제의 전체 일정을 함께하며 행사 진행 등을 지원한다. 모집 분야는 ▲관객서비스팀 ▲디자인팀 ▲마케팅팀 ▲기술팀 ▲콘텐츠미디어실 ▲한국영화팀 ▲해외영화팀 ▲홍보미디어팀 ▲전주프로젝트팀 ▲기획팀 ▲운영팀 ▲기획운영실 등 총 12개 팀 25개 파트로 약 400여 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만 18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지프지기에 참여한 자원활동가에게는 식비와 교통비를 포함한 소정의 활동비가 지급되고, 자원봉사 포털 1365를 통해 봉사 활동 시간이 부여되며, 자원활동가 기념품으로는 유니폼과 배지, 기념 앨범이 마련된다.

지원 희망자는 자원활동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서류 전형 결과는 3월 2일에 발표되며, 합격자를 대상으로 3월 7일부터 3월 19일 사이 온라인 줌(ZOOM)으로 화상 면접 심사를 진행한다. 최종 합격자 발표는 3월 23일에 이루어진다. 4월 중에는 최종 합격자를 대상으로 한 오리엔테이션과 시사회, 팀별 세부 교육, 발대식이 예정돼 있다.

제23회 전주국제영화제는 시니어 자원활동가도 모집한다. 전주 지역을 기반으로 오래 활동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거나 지속적인 활동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시니어를 대상으로 하며, 모집은 전주시자원봉사센터와 전주국제영화제 자원활동가 공식 홈페이지 두 곳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국제영화제 자원활동가 공식 홈페이지(https://volunteer.jeonjufest.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 사항은 전주국제영화제 기획팀(063-280-7902)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사실주의부터 초현실주의까지… 무주 '작은그림 6인전'

최북미술관 2층서 3월 13일까지

국내외 개최 미술대전 등서

우수 성적 거둔 작가 6명 작품 전시

무주군이 군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작은 그림 6인전'을 마련해 주목을 받고 있다.

'작은 그림 6인전'은 최북미술관 2층 기획전시실에서 지난 19일부터 오는 3월 13일까지 54일 동안 열리게 돼 이들 작가가 심도있게 출품한 작품 29점을 선보이게 된다.

이번 기획전시회는 활발하게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김성욱·문재성·서완호·이일순·이봉금·이봉영 작가들로 국내·외에서 펼쳐진 대한민국미술대전 등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양정은 학예사는 "이번 6인 전시회는 작품의 크기가 갖는 가치에 주목하는 고정 관념을 깨고 작지만 커다란 미적 가치를 가진 소품에 대해 고찰할 수 있다"라며 "사실주의부터 초현실주의까지 표현 기법을 한국화와 서양화 등의 다양한 장르를 전시함으로써 연 초부터 군민들에게 문화 향유의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ㄷ·ㄹ하미술관 무료 전시 작가 공모

정읍시가 전북 최초로 구축한 간이 상설미술관인 ㄷ·ㄹ하미술관에 입점할 전시 작가를 모집한다.

공모를 통해 총 10명의 작가를 선발할 예정이며 모집 대상은 아외 컨테이너 전시에 관심이 있는 20세 이상 예술가로 지역 구분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단, 정읍에 주소지 두고 있거나 정읍 출신인 개인 작가와 예술 단체는 우선순위가 부여되며, 학원이나 어린이집, 영리단체 등 상업적 이익을 추구하는 전시회는 제외된다.

공고 기간은 2월 6일까지고 접수 기간은 2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이다. 공개 모집을 통해 선정된 작가에게는 대관료 무료 사용의 혜택이 주어진다. /정읍=김대환 기자

야생동물들이 궁금하시다구요?

도 산림박물관, 겨울 특별기획전 '궁금한 야생동물-박제' 展

산림문화를 선도하는 전북도산림박물관(소장 허태영)은 오는 4월 3일까지 '2022 겨울 특별기획전 '궁금한 야생동물_박제 展'을 개최한다.

산림박물관은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기조로 여러 연구자료를 수집, 발굴하고 있는데, 이번 야생동물 전시는 박물관이 지난 20여 년 동안 수집한 소장품이다.

전북도산림박물관은 총 380여 점의 박제품을 소장하고 있다.

이 중 이번에 출품하는 동물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천연기념물 및 멸종위기종 60점이다.

전시품으로는 독수리, 부엉이, 잿빛 개구리, 뜸부기, 참매, 수달, 담비, 반달가슴곰 등 천연기념물 19점과 그 외 표범, 호랑이 등이 있다.

도는 이번 전시를 통해 산림박물관의 역할과 기능을 알리고, 동시에 색다른 볼거리와 흥미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허태영 산림환경연구소장은 "산림의 중요 부분이지만, 사라져가는 야생동물을 보면서 우리의 환경 의식을 점검하고 새롭게 다짐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